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2호 [루게 제24745호] 주체103(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여성추격기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조경철 동지, 오금철 동지, 오일정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대장 리병철 동지와 훈련에 참가한 비행부대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장활주로에 나가시여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의 리착륙단독비행 훈련계획을 료해하시교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추격기를 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악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을 안고 출격의 폭음을 울리며 대지를 박차고 만리창공으로 날아올라 훈련속에서 익혀온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의 단독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대단하오, 정말 잘 타오, 불사조요, 불사조라고 못내 자랑스러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이 끝난 다음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인 조금향, 림설동무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그들의 비행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불과 몇개월전에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을 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였는데 오늘 이렇게 훌륭히 성장한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의 용감무쌍한

훈련모습을 보니 대단히 만족하고 기쁘다고 하시며 남성들도 다기 힘든 추격기를 나어린 처녀들이 단독으로 탄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이 오늘훈련에서 조선여성들의 강한 의지와 굴함없는 기개를 높이 떨치였다고 하시면서 이는 결코 육체적조건과 기술적준비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참다운 조국사랑, 투철한 조국사수정신의 최대발현이며 스스로 어렵고 힘든 인생항로를 택한 승고한 혁명정신이 하늘끝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항공군력사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을 만나니 조선여성들은 이악하기 때문에 남자들 못지 않게 비행기를 잘 탈 수 있다고 하시며 1993년 2월 첫 여성비행련대를 조직 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기세차게 날으는 저 비행사들이 바로 담차고 용맹한 조선의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이라는 보고를 받으시면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금시라도 일어시여 대견히 맞아주실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여성추격기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그러시면서 오늘 첫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이 래여난것은 온 나라가 축복해줄 경사이라고, 동무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조국의 딸, 인민의 장한 딸들이며 불굴의 여성혁명가들이라고 거듭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의 고향은 어디이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시고 조국보위최소에 내세운 귀한 딸들이 조선녀성을 대표하는 여성추격기비행사로 자라난 소식을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하시면서 훌륭한 딸을 둔 부모들에게도 보내주고 온 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

나라에 크게 소개하자고 하시며 었다. 그들의 사진까지 친히 찍어주시



지켜가는 값높은 인생을 아름답게 빛내이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그들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였다.

우리 녀성들에게 조국의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시고 슬기와 담력을 안겨주시며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여성혁명가라는 값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70년의 항공군력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가는 녀성전투원답게 비행훈련장마다에서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열정의 폭음을 드높

이 울려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여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역세 이 울려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 비행사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몸 게 준비해나감으로써 영웅조선의 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으로 비행훈련을 더 맹렬히 진행 효녀들답게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민주공고단체 불레틴과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의 전문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공고위원회가 18일 불레틴에 게재하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의 상세한 요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구위원회가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꾸알라 룸푸르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당 최고리사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이 《하나의 말레이시아》구호에 민족적합을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

다. 우리는 이 기회에 조선로동당과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 당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3(2014)년 11월 27일

평양

위성과학자주택 지구에 첫 김정일이 왔다.

집앞의 남새밭에서 실하게 자란 김장용남새들을 받아안은 과학자정들이 또다시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고있다. 사연깊은 배추며 무우를 정히 다듬는 주인들의 눈앞에 뜨겁게 어려오는 자애로운 모습이 있다.

지난 10월 13일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시면서 자신께서 지난 6월 아바트들사이의 공간에 남새밭을 만들어주라고 하였는데 그 남새밭에 심은 남새들이 잘피었다고 그리고 기뻐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해빛같은 모습이다.

술기는 결을걸고 그 어디에나 우리 원수님의 사랑 따스하게 스며있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11월의 김정일은 또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여주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며 과학기술사업은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지난 6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새로운 조선수도창조의 열풍으로 들끓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던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에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시였다.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며 과학자주택지구건설을 세심하게 지도하여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아바트들사이

혁명일화

새 과학자주택지구의 첫 김장철풍경

기에는 무엇을 건설하려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들은 설계에 반영되어있는대로 공지에는 휴식장과 놀이터를 앉히려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그곳을 바라보시였다.

은근한 긴장이 일군들의 가슴을 파고 드는데 이윽고 무엇인가 결심하신듯 그들쪽으로 돌아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지에 남새밭을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에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놀랐다.

(남새밭이라니?)

이런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지구의 공지들이라는 용당 그어 어울리는 휴식장과 놀이터를 건설하는것이 상례로 되어왔던것이다.

의아해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시였다. 평양시교외에 위치한 살림집지구의 특성에 맞게 아바트들사이 남새밭을 만들어 올해 김장용남새를 해결하고 자그마한 온실들도 건설하여주면 과학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흥배지도에 남새밭과 온실을 반영하고 남새밭정리와 온실건설도 공사계획에 포함시켜 집적으로 해주어야 하겠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새겨듣는 일군들의 가슴은 후벼워올랐다.

당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준공달은 10월이었다. 건설자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학자주택지구준공의 10월이 깊이 새겨져있었지만 누구도 그 10월이 김장철을 앞둔 때라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었다. 그리고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의 칸수나 방넓이, 주택지구의 구조에는 신경을 썼지만 교외에 위치한 이 살림집지구에서 살게 될 주민들의 남새문제까지 생각이 미친 사람은 더더구나 없었다.

일군들의 눈앞에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첫째 김장철풍경과 더불어 집앞의 남새밭에서 푸르싱싱한 배추, 무우를 안아들이며 누구보다 기뻐할 과학자 가정의 주부들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건설을 전문으로 해온 설계가들에게도, 건설일군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어느 건설사에 파견 이런 일이 있었었는가! 이렇게 되어 새집들이경사가 시작될무렵에는 남새밭과 온실에 호젓한 남새작황이 함께 펼쳐지는 희한한 광경이 마련되였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새집들이가 시작된 지난 10월 19일이었다.

5칸, 4칸, 3칸짜리 덩실한 집을 받아안은 과학자정들을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한 과학자주택지구를

는 사람들의 눈에 뜻밖에도 통이 실한 배추, 무우가 딱 들어찬 남새밭이 띄였다. 이렇게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지구에 남새밭이라니?

꽃밭도 아닌 푸르싱싱한 남새밭을 보고 놀라와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자의 안해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이렇게 말해주었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김장용남새랍니다.》

그런 사연을 안고있는 남새들이 이 김장철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집집마다에 차례진것이다. 하지늘 어찌 그 사랑 앞에 행복의 금방석의 주인공이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수 있랴.

사람들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첫째 김치맛이 아마도 류다를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건국축을 파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금 격정속에 되새기고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남새밭일화는 해마다 오는 김장철과 더불어 우리 과학자들을 위한 건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철

제논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왔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신 감탄하는

사람들의 눈에 뜻밖에도 통이 실한 배추, 무우가 딱 들어찬 남새밭이 띄였다.

이렇게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지구에 남새밭이라니?

꽃밭도 아닌 푸르싱싱한 남새밭을 보고 놀라와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자의 안해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이렇게 말해주었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김장용남새랍니다.》

그런 사연을 안고있는 남새들이 이 김장철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집집마다에 차례진것이다. 하지늘 어찌 그 사랑 앞에 행복의 금방석의 주인공이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수 있랴.

사람들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첫째 김치맛이 아마도 류다를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건국축을 파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금 격정속에 되새기고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남새밭일화는 해마다 오는 김장철과 더불어 우리 과학자들을 위한 건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철

【평양 1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평판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한 평안북도, 함경북도, 황해남도군민대회가 27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적대세력들의 특대형도막극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쳐갈 필승의 기상이고 모인 군중들로 차고 넘치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장에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조작해낸 《인권결의》라는 것을 전면 거부, 전면배격하며 우리들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지 않겠다고 천백배의 보복을 가할 천만군민의 의지를 담은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대회들은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군민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리만견 도당위원장 회담비서가 광복

신성한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린 범죄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평안북도, 함경북도, 황해남도군민대회 진행

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군관 리철,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학원기계원 합기업소 로동자 장길남,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신의주시 백도협동농장 관리위원 장길기,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신의주농업대학 학생 최진혁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 무대를 악용하여 조작해낸 《인권결의》라는 것을 전면 거부, 전면배격하며 미국이 저지른 범죄를 놓고 우리앞에 무릎을 꿇고 정식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귀중한 모든것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고 꾸며낸 대조선 《인권결의》라는 것은 과묵치한 정치적 날조품이라고 준렬히 규탄하였다.

대대로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압살과 같은 형형색색의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우리 인민에게 해어줄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여온 불구대전의 철천지원수이러는데 대해 말하였다.

미국놈들이 《인권》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 정말 낱박

도 없는 버러지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인간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이라고 폭로하였다.

참다운 인권이 모욕당하고 자주권과 국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라 하면서 세계는 자기 명도자를 결사옹위하며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불개강조화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적들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입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당인민대중운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산혁명군대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결의》로 괴물적인 선전포고를 강행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학원의 로동계급은 준엄한 진화의 나날 수평선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전시생산을 보장한 10명 당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미제와 박근혜당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을 대항하여 장명 김병기,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책제철원합기업소 직방위원장 최기남,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청진시 송평구역 풍호협동농장 농장원 최화순,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청진제2사범대학 학생 최영무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불순적대세력들이 강행한 대조선 《인권결의》라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인민위원의 왕초인 미국이 어중어중이들과 야합하여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 것을 꾸며낸 그 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으며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격분하여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 사는 인간의 참된 삶을 누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자주 존엄높고 자유, 자립으로 위용될지는 신성한 공화국을 허물어버려주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박근혜당을 비롯한 원수들을 모조리 추방쳐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민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인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을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도만을 총대로 총직하게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수적들의 기상안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적전투에서 함입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로동계급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틀어치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전시식량생산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섰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농민들처럼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쌀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음모와 모략의 소굴을 단숨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청년의 지혜와 열정

을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민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박영도 도당위원장 회담비서가 광복동에서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장명 리병록,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해주금강청년전선소 조급직방위원장 김윤옥,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해주시협동농장장령위원장 최원장 한숙연,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림정호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치초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국의 강도적론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어중어중이들은 자기 주권을 세우지 못한 대가야 얼마나 값비싼가를 대를 두고 통탄하며 후회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부대들마다에 백두산혁명군인이 용감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듯 하며 단단의 전투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 결전의 시각이 오면

적의 아성을 단숨에 초토화해 버리고야말것이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도안의 전체 인민들은 원수적들의 의지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서 결전의 날이 오면 인민군인들과 함께 한전호에서 용감히 싸워 우리의 신성한 존엄을 모독한 범죄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릴것이라고 말하였다.

황해남도자연호름식물원공사와 풍매도간척지건설 등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다음해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농사를 앞설것에 지어 인민군대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학생들이 적들과는 말로 싸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청춘을 바쳐 미제를 쳐부신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처럼 영웅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온 세상에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천지원수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억세게 수호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군민대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반공화국책동을 일삼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단호히 물거품으로 삼아 버릴것을 다짐하고, 우리 인민들의 단결을 힘있게 부르며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신천땅의 진리-반미대결전에 자주적존엄이 있다

혁명이 력사의 준엄한 폭풍을 맞았

이 전진할수록 천만군민을 더욱 비상히 자각시키는 사상강령이 있다.

우리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계급적원수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철학적계급의식이다.

일찍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천박물관을 찾으신 소식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인권》소동에 격분할 것을 금치는 천만군민의 계급적자각을 더욱 배배해주고있다.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오늘도 만천하에 보여주는 력사의 땅 신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천박물관을 돌아보시며 과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반미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띠면서 사람들의 자주적존엄과 인민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승배, 사회주의의 승배는 반미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반미대결전에 자주적존엄이 있다! 신천은 이 력사의 진리를 오늘도 혁명의 새 세대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업이다. 계급교양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그 어느때보다 깊이 꿰뚫어 보시고 력사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아무리 세월이 백년, 천년이 흐르더라도 절대로 변할수 없는것이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본성이기에 경애하는 동지께서는 이곳 신천박물관을 찾으신데 반미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환의 계기를 열어나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회가 얼마나 깊으셨으랴.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신 16년전 11월의 잊지 못할

그날을 그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쓰으신 추억에 잠기시었다.

주제 87(1998)년, 그 시기에 도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참으로 엄혹하다.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경제적인난, 우리 인민중지우위성발사와 관련된 하여 또다시 본격화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전쟁소동...

우리 공화국에 대한 원수들의 침략적행동이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계급교양이 가지는 중요성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적들의 만행의 산 증거물들인 피의 절은 옷가지들과 고무신들, 불에 타다 남은 반미반미교양, 어린이들의 미끼로 물, 원수들이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할 때 쓰던 가지가지의 괴물도구들과 살인총기들앞에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비탄을 금치 못하시었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은 분노의 불길에 이글거리게 하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천박물관은 우리 인민들을 계급의식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교양장소라고, 이곳은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귀족같은 만행을 보여 주는 속도이며 력사의 고발장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제를 비롯한 계급적원수들과 반동들의 행위를 날로 우심해지는 조건에서 인민들속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세월은 흘러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원수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계급교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금도 일깨워 주는 진술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을 되새기시며 박물관을 돌아보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팎에 근엄한 빛이 어리었다.

백두산전진부대 우리 나라를 침략해 온 미제살인괴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락적인 일시적후퇴시기 2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신천에서사만도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 여명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미제야수들은 남다른 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였

으며 굶겨죽이고 얼어죽어있을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어머니들에서 강제로 떼어내어 화약창고에 가둔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죽였다.

본관에 전시되어있는 자료들과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수십년전의 원한의 절규가 들려오는듯싶은 사색어머니묘와 백두어머니묘앞에 대한 이처럼 무분별한 망들은 반미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다시금 가르치셨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투철한 반미반미교양과 주적관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신것이다.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는지, 그이의 심장에서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있는지, 최대의 열정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소와 용두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폭투히 알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전진길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군열을 경축하시며 도발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피의 절규로는 평평어리가 비늘에 떠는것은 신천, 여기에 마음을 세우면 누구나 절감하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평양 1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국악무도한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기 위한 청년전위들과 직맹일군들, 직맹원들의 결의대회가 27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대외장들은 황당무계한 특대형도막극으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미쳐날뛰는 날강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담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방독하

이어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노동자 황정운, 만경대구역 칠골남성전문농장 농장원 오금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홍강민, 대성구역 6월9일릉북고급중학교 학생 김정광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한복숨바쳐 결사수호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지못해 낫과 북을 총대로 바꿔놓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초강경대응전으로 짓궂게 버리자

청년전위들과 직맹원들의 결의대회 진행

나발을 불어대고 제국주의매부리들이 달려들어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설사 그가 누구이든,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선군조선의 이름으로 가져가서도 정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진리를 신장에 새기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고 미제인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청년전위들이 일단 명령한 내리면 인민군대와 한진호에서 어깨걸고 싸워 백년속적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마지못해 한눈까지 써도 없이 소탕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행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탄이 되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라고 쓴 프랑카드와 선전화 등을 들고 기세높이 행진하였다. 판가리결정의 그날이 오면 19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복숨바쳐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열렬의 기상이 행진대로마다 나타내었다.

정의를 남북전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혁명적열의를 담은 우렁찬 구호의 합성이 수도의 거리를 진감하는 속에 청년전위대오가 발걸음드높이 김일성광장에 들어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다진 맹세대로 혁명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고 당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언제나 끝바로 나아갈 행진참가자들의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며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 《우리는 당신밖에 모

른다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이와 함께 청년전위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한복숨바쳐 결사수호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지못해 낫과 북을 총대로 바꿔놓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나발을 불어대고 제국주의매부리들이 달려들어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설사 그가 누구이든,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선군조선의 이름으로 가져가서도 정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진리를 신장에 새기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고 미제인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청년전위들이 일단 명령한 내리면 인민군대와 한진호에서 어깨걸고 싸워 백년속적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마지못해 한눈까지 써도 없이 소탕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행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탄이 되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이와 함께 청년전위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한복숨바쳐 결사수호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지못해 낫과 북을 총대로 바꿔놓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나발을 불어대고 제국주의매부리들이 달려들어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설사 그가 누구이든,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선군조선의 이름으로 가져가서도 정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진리를 신장에 새기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고 미제인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청년전위들이 일단 명령한 내리면 인민군대와 한진호에서 어깨걸고 싸워 백년속적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마지못해 한눈까지 써도 없이 소탕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행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탄이 되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이와 함께 청년전위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한복숨바쳐 결사수호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지못해 낫과 북을 총대로 바꿔놓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나발을 불어대고 제국주의매부리들이 달려들어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설사 그가 누구이든,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선군조선의 이름으로 가져가서도 정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진리를 신장에 새기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고 미제인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청년전위들이 일단 명령한 내리면 인민군대와 한진호에서 어깨걸고 싸워 백년속적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마지못해 한눈까지 써도 없이 소탕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행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탄이 되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이와 함께 청년전위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한복숨바쳐 결사수호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지못해 낫과 북을 총대로 바꿔놓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나발을 불어대고 제국주의매부리들이 달려들어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설사 그가 누구이든,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선군조선의 이름으로 가져가서도 정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진리를 신장에 새기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고 미제인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청년전위들이 일단 명령한 내리면 인민군대와 한진호에서 어깨걸고 싸워 백년속적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마지못해 한눈까지 써도 없이 소탕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행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탄이 되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이와 함께 청년전위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한복숨바쳐 결사수호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지못해 낫과 북을 총대로 바꿔놓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나발을 불어대고 제국주의매부리들이 달려들어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설사 그가 누구이든,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선군조선의 이름으로 가져가서도 정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진리를 신장에 새기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고 미제인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청년전위들이 일단 명령한 내리면 인민군대와 한진호에서 어깨걸고 싸워 백년속적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마지못해 한눈까지 써도 없이 소탕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행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탄이 되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이와 함께 청년전위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한복숨바쳐 결사수호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지못해 낫과 북을 총대로 바꿔놓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나발을 불어대고 제국주의매부리들이 달려들어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설사 그가 누구이든,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선군조선의 이름으로 가져가서도 정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진리를 신장에 새기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고 미제인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청년전위들이 일단 명령한 내리면 인민군대와 한진호에서 어깨걸고 싸워 백년속적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마지못해 한눈까지 써도 없이 소탕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행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탄이 되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이와 함께 청년전위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궂게 버리자!》, 《500만의 총포탄 되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는》의 노래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왔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한복숨바쳐 결사수호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지못해 낫과 북을 총대로 바꿔놓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이보다 강조하였다. 투철한 수평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인권》소동에 환장한 뒤 날강도 무리들을 무찌라치로 때려부시는 심정으로 생산과 건설을 할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초강경대응전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 생산보장하며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 맹세를 피력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이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한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 우리 당의 당과 공화국, 우리 식 사회주의의 높은 권위와 존엄을 한몸 다 바쳐 견결히 옹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군조선의 최고존엄의 상징이며 우리의 운명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우리 당과 공화국, 우리 식 사회주의의 높은 권위와 존엄을 한몸 다 바쳐 견결히 옹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한복숨바쳐 결사수호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지못해 낫과 북을 총대로 바꿔놓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양보와 후퇴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치는 자멸의 길

철천지원수 미제의 죄악을 철저히 결산할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새로운 대륙의 발견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 침략과 약탈, 피로 얼룩진 역사만을 기록해온 아메리카제국을 두고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인작가가 개탄한 소리이다. 인디언들의 피가류에서 솟아난 미국, 멀거벗은 아메리카 미국이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데 대하여 우리의 천만국민은 복수의 피를 끓이고 있다.

남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유엔무대에서 별의별 악담을 다 늘어놓던 미국이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나중에 우리 공화국을 《인권유린시대》인척하며 날조, 매도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의문에 떨지 않겠는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철코연임을 건드린것은 미국의 죄악의 역사에 또 하나의 수직스러운 폐지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민은 그러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나라와 결산할 것이 너무 많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우리 인민앞에 섰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미제는 《서연》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한세기 반 동안이나 조선을 침략하여온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이다.

끝없는 탐욕은 계절은 승냥이의 기질이다. 일찍부터 개척리금수강산이라고 불리며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우리 나라에 금은보화가 무진장하다는 사실을 스쳐보낼 수 없어 군침을 흘리며 야수적인 승냥이축성을 드러낸 미국이다. 미제는 아시아대륙으로부터 뻗어내린 반대로 되어있는 조선을 손안에 넣기만 하면 그들 발판으로 하여 전 아시아대륙을 침략할 수 있다고 이것을 타산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미제의 조선침략사는 가장 야만적인 살육과 약탈, 파괴로 얼룩진 피비린력

사이다. 침략선을 타고 대양 건너 조선 땅에 침략의 첫발을 들여놓은 미국살인마들은 민가를 습격방화하고 재물을 로탈질하며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의 집에 뛰어들고 강도 집주인보고 강도라는 감투를 골찰 의무는 법이다. 미국선교사가 나아낸 한 조선소년이 떨어지자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하여 사나운 개를 풀어 물어뜯게 하고도 성 차지 않고 그의 이마에 청장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은 것은 남강도들의 파렴치성과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미제야수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같이 우리 인민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목숨을 빼앗겼다.

미제가 얼마나 남강도무리인가는 남연 군무덤도굴이 실례하자 도적이 배를 드는 것으로 조선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노는 편지의 구절이 말해주고 있다.

《사람의 목을 파는것은 폐에 어긋나지만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음에 또 몰아넣는것보다는 나을것이기때문에 할수있는 한것이다. 원래 판까지 가져오려고 했으나 그것은 지나친것으로 생각되어 그만두었으니 이는 폐의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요구에 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만일 거부한다면 몇달후에는 대규모의 군사적침공이 있을것이니 지금의 좋은 기회를 택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의 나라 조상무덤까지 파헤치면서 《폐의》를 떠든 이런 무덤도굴자들이 19세기에 이어 20세기에 들어 조선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었다.

침략전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그 식민지를 통치해 주려고 하였으며 해방후에는 일제를 대신하여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하였다. 일제와 공모결탁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적지원을 장악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무제한하게 감

행하였다. 미국때문에 우리 민족이 겪은 재난과 불행은 갈수록 헤아릴수 없다. 예로부터 단일민족으로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를 분열시킨 장본인도,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야수적인 파괴와 학살만행을 감행한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제의 조선침략사에서 남조선에 대한 그 70년간의 군사적침공과 지베기간은 특히 야만적이며 강도직간이다.

8.15후 폐방한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감점한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남조선의 모든 부문을 철저히 에속시켜 그곳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가 짓밟히고 대중적학살이 매없이 감행되는 사람 못살 인장성적지로 만들었다. 미제침략관은 《해방사》를 쓰고 남조선에 기여한 것날부터 잔인성과 야수성에 있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만행을 일삼았다. 인민들의 의사에 의해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총칼로 강제해산하고 애국적인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에 대한 잔인적인 테러와 학살만행을 감행하여 온 남조선땅을 피와 피로 뒤덮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무기로 감행하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약탈만행을 일일이 다 꼽자면 끝이 없다.

피에 주린 살인마로서의 미제침략자들의 본성은 지난 조국해방전쟁기까지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죽어라.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이나 노인이라도 활자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어지는 안된다.》고 한 당시 18군사법관이었다던 위키의 살인명령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이 도발한 지난 조선전쟁은 조선인민족멸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대륙침정이었다.

미제살인귀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시기 공화국북반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중적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황해남도 선진지구에서만도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3만 5 000여명의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피에 주린 야수들은 우리 인민들을 학살하는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 강점군의 만행을 직접 조사, 취재한바 있는 세계 각국의 조사단들과 기자들은 조선에서의 미제의 만행을 《세계력사상 그 어디에서도 없었던 최악의 만행》으로 략인하면서 살인귀들의 야수성을 온 세상에 신랄히 고발하였다.

미제는 조선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처남뛰고있는 가장 흉악하고 포악한 남강도무리이다. 지난 세계 50년대에 쓰디쓴 참예를 맞은 미국은 오늘 거기에서 교훈을 찾음 대신 이루지 못한 침략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더욱 미쳐남뛰고있다. 시대적요구와 국제관계변화에 이렇듯 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저들의 지배야망이 어찌나 오늘에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100여년간에 걸치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의 역사와 오늘 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야말로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 철천지원수라는것을 똑똑히 체득하였다. 저들의 리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을 전쟁의 재물로 삼는것도 서슴치 않는 미제는 분별의 비극을 안고 몸부림치는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광화까지 들이우려고 미쳐남뛰는 침략자이다. 이것을 어떻게 용서할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인민이 필생의 신념으로 간주하고있는 선군, 그것은 백수선군이나 의외에 의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여온 파란많은 민족사를 통하여 얻은 피의 교훈이며 역사적선택이다. 우리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의 죄악에 찬 침략자를 높이 시결산할것이며 역사적인 반미대결전을 기어이 빛나는 승리로 결속지울것이다. 죄악의 역사는 반드시 계산될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죽음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가져다주는 후과는 너무도 참혹하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가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일으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 리비아사태 등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가져다준 비극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에 못이겨 중앙에는 자기의 군사장비들을 세운으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그 어떤 자그마한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다가는 순간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운명이 판도질당하게 된다. 《인권문제》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문제》들을 날조해내는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본성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그에 대처하여 높은 혁명적각각성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한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반제자주위업의 전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이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에는 착취와 압박을 받아 보지 못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들어서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지금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은 우리를 정치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질식시키고자 함께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비방중상하고 온갖 모략단계를 내몰아 우리 내부를 와해교란시키기 위하여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열백년 바뀐다고 하여도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계급교양을 계속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혁명전진, 계급정치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나라와 인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반동세력들의 음흉한 모략과 침략행동을 철저히 거부서버리기 위해 반제자주의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가져다주는 후과는 너무도 참혹하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가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일으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 리비아사태 등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가져다준 비극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에 못이겨 중앙에는 자기의 군사장비들을 세운으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그 어떤 자그마한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다가는 순간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운명이 판도질당하게 된다. 《인권문제》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문제》들을 날조해내는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본성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그에 대처하여 높은 혁명적각각성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한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반제자주위업의 전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이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에는 착취와 압박을 받아 보지 못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들어서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지금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은 우리를 정치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질식시키고자 함께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비방중상하고 온갖 모략단계를 내몰아 우리 내부를 와해교란시키기 위하여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열백년 바뀐다고 하여도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계급교양을 계속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혁명전진, 계급정치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나라와 인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반동세력들의 음흉한 모략과 침략행동을 철저히 거부서버리기 위해 반제자주의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조선 《인권》소동의 주범과 가담자들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이라고 경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인권》소동을 철대로 용서치 않겠다》를 23일과 2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라이 노보스토펙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미국이 심사숙고할 대신 초보적인 수전도 속도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을 구함하여 대조선《인권결의》를 조직한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를 파렴치한 정치사기극으로 략인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의 권위를 감히 훼손시킨것으로 하여 무자비한 처벌의 철추를 면할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오바마행정부가 무릎을 꿇고 정식 사죄할것을 촉구하였으며 우리의 범죄도 반드시 계산될것이라고 밝혔다.

대조선 《인권》소동의 주범과 가담자들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나라의 따스통신, 인터넷통신 등도, 무라 라지오방송 등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몽골신문 《어드린 쏘닌》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가 대조선《인권결의》소작에 강경대응할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유엔무대에서 조작된 이 특대형 모략극은 정의를 부정하고 짓누르고 진리를 허위화하려하려는 파렴치한 정치사기극이며 음모와 날조로 세상사람들을 기만해보려는 철면피한 광대놀음의 극치이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조선군대와 인민은 극악무도한 대조선《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한 미제류의 초강대국전에 진입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런데도 조선의 초강대국전에 앞장서고 있는 초강대국에 대한 성명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신문 《스트레치 타임즈》와 TV《아시아소식통》, 파키스탄신문 《더 네이션》, 벨기에의 포루스통신, 우루과이 세, 예기스36라지오 세네라 라오방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교부의 판대신문 《글로벌 인포네트웍스》도 우리 나라 국방위원회에 성명을 전하였다.

이런데도 대조선TV방송은 조선국방위원회가 인권에 관한 강도적인 《결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전포고나 같다고 주장하였다. 광란적인 대조선《인권》소동이 초래하게 될 상상상의 파국적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고도 전하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가 성명을 통하여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조작해낸 《인권결의》라는것을 전연거부,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민은 곧 자주권이며 해당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면서 이번 《결의》통과가 조선의 국권을 해치려는 가장 모랄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청교대가 인민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조선국방위원회가 유엔《인권결의》가 채택된것을 규탄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에 대하여 가장 무자비한 보복세를 안길것이라고 하면서 일본도 초강대국원전에 걸코 벗어날수 없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극치명 그대로 나가는 경우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정도도 아니라 조선의 면전에서도 영영 어지는 존재가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또한 조선은 애당초 미국주도하의 불순적대세력들이 조선의 자주권을 생존권을 침해하기 위해 고안해낸 그 어떤 형태의 《결의》라는것들을 한 단번에 인정해본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조선 민족 멸살을 노린 미제의 생화학전만행

서울이북지방사이에 류형성출혈형병행위를 뿌리며 이 지역에서 살인 수많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갔다. 전신 38°에서 고작피도 오하려 제비들이 부린 류형성출혈형병행위에 걸려 올당한 징병을 받았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도 미군이 이 병에 걸려 2 100여명이나 죽었다고 한다.

서울이북지방사이에 류형성출혈형병행위를 뿌리며 이 지역에서 살인 수많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갔다. 전신 38°에서 고작피도 오하려 제비들이 부린 류형성출혈형병행위에 걸려 올당한 징병을 받았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도 미군이 이 병에 걸려 2 100여명이나 죽었다고 한다.

1951년 9월 21일 미제침략자들은 《작전상황중 세군전에 사용되는 류형병행위의 효과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구모형시험실험을 시작할 것》이라는 미합동참모본부의 명령에 의하여 세군전만행을 계획하며 조직적으로 집행하였다.

1952년 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의 16개 지역에 연 804차례에 걸쳐 각종 세군전을 투하하였 다. 범죄적인 세군전에 동원된 비행기는 북반부지역의 폭격에 동원된 비행기는 4분의 1에 해당하며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대에 달하였다. 세군부적용수단으로 세군폭탄, 세군산포탄, 세군포탄, 중이탄, 원통형의 나무함 등을 리용하였으며 세군부적용의 종류는 메스트, 콜레라, 천연두, 류형성출혈병,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등 20여종에 달한다. 세군에 감응시켜 떨어뜨린 중공과 동맹들은 파리, 모기, 벼룩, 빈대, 쥐를

서울이북지방사이에 류형성출혈형병행위를 뿌리며 이 지역에서 살인 수많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갔다. 전신 38°에서 고작피도 오하려 제비들이 부린 류형성출혈형병행위에 걸려 올당한 징병을 받았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도 미군이 이 병에 걸려 2 100여명이나 죽었다고 한다.

1951년 9월 21일 미제침략자들은 《작전상황중 세군전에 사용되는 류형병행위의 효과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구모형시험실험을 시작할 것》이라는 미합동참모본부의 명령에 의하여 세군전만행을 계획하며 조직적으로 집행하였다.

1952년 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의 16개 지역에 연 804차례에 걸쳐 각종 세군전을 투하하였 다. 범죄적인 세군전에 동원된 비행기는 북반부지역의 폭격에 동원된 비행기는 4분의 1에 해당하며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대에 달하였다. 세군부적용수단으로 세군폭탄, 세군산포탄, 세군포탄, 중이탄, 원통형의 나무함 등을 리용하였으며 세군부적용의 종류는 메스트, 콜레라, 천연두, 류형성출혈병,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등 20여종에 달한다. 세군에 감응시켜 떨어뜨린 중공과 동맹들은 파리, 모기, 벼룩, 빈대, 쥐를

서울이북지방사이에 류형성출혈형병행위를 뿌리며 이 지역에서 살인 수많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갔다. 전신 38°에서 고작피도 오하려 제비들이 부린 류형성출혈형병행위에 걸려 올당한 징병을 받았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도 미군이 이 병에 걸려 2 100여명이나 죽었다고 한다.

1951년 9월 21일 미제침략자들은 《작전상황중 세군전에 사용되는 류형병행위의 효과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구모형시험실험을 시작할 것》이라는 미합동참모본부의 명령에 의하여 세군전만행을 계획하며 조직적으로 집행하였다.

1952년 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의 16개 지역에 연 804차례에 걸쳐 각종 세군전을 투하하였 다. 범죄적인 세군전에 동원된 비행기는 북반부지역의 폭격에 동원된 비행기는 4분의 1에 해당하며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대에 달하였다. 세군부적용수단으로 세군폭탄, 세군산포탄, 세군포탄, 중이탄, 원통형의 나무함 등을 리용하였으며 세군부적용의 종류는 메스트, 콜레라, 천연두, 류형성출혈병,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등 20여종에 달한다. 세군에 감응시켜 떨어뜨린 중공과 동맹들은 파리, 모기, 벼룩, 빈대, 쥐를

라 전선과 후방의 모든 지역, 모든 대상으로 대하여 입의 시각에 사용되

로씨야대통령 극단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 립장 천명

로씨야대통령 올라지미르 푸틴이 최근 연방안전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극단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극단주의는 침략적이고 테러와 연결된 폭력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말했다.

로씨야와 같은 다민족국가에 극단주의사상이 전파된다면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후과가 초래될것을 경고하였다. 그는 정부가 영향력제정의 도구를 리용되고있는 극단주의와의 투쟁을 철저히 법에 준하여 진행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 시종일관 완강하게 투쟁해야 하

며 그 요소들을 짓밟아버리고 민족적, 사회적 혹은 종교적지반에 기초한 분쟁을 도발할수 있는 원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극단주의가 급진적인 사상의 전파를 배격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사회단체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CNN방송은 합의시위를 25일 현재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국각지의 170개 도시로 번져있다고 전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중서부

《미국사회는 세차게 흔들리고있다》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시위 170여개 도시로 확대

미주리주의 피구슨에서 지난 8월 18일 난 흑인청년이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죽었다는 인종차별사건을 사살한 백인경찰관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관련하여 이에 항의하는 시위투쟁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미국 CNN방송은 합의시위를 25일 현재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국각지의 170개 도시로 번져있다고 전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중서부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시위 170여개 도시로 확대

미주리주의 피구슨에서 지난 8월 18일 난 흑인청년이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죽었다는 인종차별사건을 사살한 백인경찰관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관련하여 이에 항의하는 시위투쟁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미국 CNN방송은 합의시위를 25일 현재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국각지의 170개 도시로 번져있다고 전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중서부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시위 170여개 도시로 확대

미주리주의 피구슨에서 지난 8월 18일 난 흑인청년이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죽었다는 인종차별사건을 사살한 백인경찰관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관련하여 이에 항의하는 시위투쟁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미국 CNN방송은 합의시위를 25일 현재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국각지의 170개 도시로 번져있다고 전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중서부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시위 170여개 도시로 확대

미주리주의 피구슨에서 지난 8월 18일 난 흑인청년이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죽었다는 인종차별사건을 사살한 백인경찰관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관련하여 이에 항의하는 시위투쟁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미국 CNN방송은 합의시위를 25일 현재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국각지의 170개 도시로 번져있다고 전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중서부

평화적핵권리를 옹호하는 대학생 집회



이런 수도에서 23일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권리를 옹호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적인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나라의 핵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폭탄을 철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의 핵권

이런 수도에서 23일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권리를 옹호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적인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나라의 핵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폭탄을 철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의 핵권

이런 수도에서 23일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권리를 옹호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적인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나라의 핵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폭탄을 철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의 핵권

이런 수도에서 23일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권리를 옹호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적인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나라의 핵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폭탄을 철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의 핵권

이런 수도에서 23일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권리를 옹호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적인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나라의 핵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폭탄을 철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의 핵권

이런 수도에서 23일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권리를 옹호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적인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나라의 핵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폭탄을 철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의 핵권